

“세상은 객지... 나한테는 죽는 것이 수지맞는 일이지”



해암의 법문 중에서 가장 빼어난 법문은 대적광전 법상에 올라 앉아 당당하게 터뜨리는 상당법어였다. 그런데 해암은 법어 원고를 상좌에게 맡기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법어 원고를 상좌에게 보여주는 일은 더러 있었으나 상좌는 단 한 자 한 줄도 손을 대지 못했다. 단 한자라도 수정했다가는 불벼락이 떨어졌다. 해암을 15년 동안 시봉했던 각안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스님의 법문이나 어록을 보면 지금도 스님을 친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문장 한 줄 글자 한자에 스님의 법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법문 원고를 절대로 상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니다. 당신이 체렴하고 확신한 것만 법문하셨습니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살림살이란 오롯하게 드러내신 분이 우리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수행자를 상대로 말하는 상당법어는 자신의 수행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문이므로 아무라도 법상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해암이 대적광전의 법상은 성철이 백일법문을 한 뒤로부터는 그 위상이 존엄하고 확고했다.

해암이 상당법어를 하는 날의 대적광전은 긴장감마저 들었다. 스님들이 법당 안에 빠싹히 들어 차 앉았으나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은 것처럼 숨소리 한 점 들리지 않았다. 비로자나불 아래 앉은 해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형형했다. 법당 안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해암이 내리치는 세 번의 주장자 소리였다.

“내가 나의 물건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남이 내 물건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으나 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 없는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법문하여도 글자나 말만 다를 뿐, 이것밖에는 다른 법문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주 스님께서 남전 스님에게 물으시되, 무엇이 도(道)입니까. 하니, 남전 스님께서 이르시되 ‘평상심(平常心)이 도(道)니라’ 하였습니다.

내리네. 만약 쓸 데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면 문득 사람이 인간 세상의 좋은 시절을 만난 것이니라.

산승이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에 들었을 때 일입니다. 모 비구니스님이 대중공양을 올린 후 본인이 직접 법문 할 수 있도록 전강 조실스님에게 허락을 받고 신도님 전에서 법문하는데 산승이 듣자 하니, ‘평상심이 도’라는 법을 권견에 따른 분별심으로 집착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견성한 분상에서는 과실이 없지마는 범부의 입장에서 말하면 자연의도라고 합니다. 언어도단이나 불가피하게 말하자면,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사(取舍)가 없고 단상(斷想)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니, 진실하게 정진하여야 합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니 영리한 사람이 언하에 알면 바로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천진면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생(無生)의 묘한 이치(깨달음)를 알지 못하니 어찌 능히 생사윤회의 고를 벗어나겠습니까.

그 원인은 일체중생이 자기의 본래 근원된 자성을 매각하여 무명육식(無明六識)을 반영하여 생각을 삼아 곧 진로심(塵勞心), 분별망상에 얽혀서 업을 지어 고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평상심이 아닌 것입니다.

곧 뒤바뀐 생각의 습성 업력이나,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잘 살피고 살핍시다. 불가피하게 말하자면 대지가 본래 일이 없거늘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빛이나 되겠습니까.

배움을 끊은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제거할 것도 없고 진(眞)을 구할 것도 없는지라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는 것을 어찌 하필이면 마음 밖을 향하여 도를 구한단 말입니까.

산승이 하동 칠불암에서 안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계사 수계산림(受戒山林)에 증사(證師)로 갔더니 강진 백려사 선원대중이 비구수계를 하기 위해 와서 말하기를, “모 선사님에게서 ‘선답(禪答)을 받지 못하면 입사(入寺)를 금한다(백려사)로 다시 오지 말라’는 엄명을 받아 왔습니다”고 하면서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림-최문정

술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쓸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업장의 불 속에 마른 쇠를 보탠다는 것은, 모든 물건이 우리를 좋게 해주는 것 같아도 욕심의 불을 더 치성하게 하는 재료가 될 뿐인 것입니다.

출가한 수도대중(修道大衆)은 재색(財色)을 가장 먼저 멀리 금하고 대중처소에서는 모름지기 입을 조심하며, 혼자 살면서는 번뇌망상의 도적을 막아야 합니다.

고명한 스승을 항상 모시고 섬기며 약한 벗은 같은 이불을 덮지 말 것이며, 말을 할 때는 마땅히 희롱하여 웃지 말고, 잠자되 또한 마음 놓고 자지 말아야 합니다.

정법(正法)을 만나기는 바다에서 거북이가 나뭇조각에 오르는 것과 같고, 사람 몸 받기는 바다 속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회광반조(迴光返照)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라, 모든 것을 참지 아니하고 어찌 좋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려고 합니까. 뜻과 원은 높은 산과 같이 세우고 넓은 바다와 같이 아량을 베풀어서 구경(究竟)의 대각(大覺)을 이루는 데 기어이 뛰어올라 갑시다.

스승을 가리고 벗을 가려서 자세하고 묘하고 밝은 법을 깨달을 것이며, 앉아서는 반드시 활구를 참구하고 행할 때는 모름지기 간단없이 공부하여 가야 하며, 몸을 도와주는 데는 하루 한 때만 먹고, 잠은 밤 열두 시가 넘어서는 자지 말아야 합니다.

경전을 여의지 말고 외도의 서적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낙을 비록 즐겁다고 하나 죽음이라는 마군이 문득 괴롭게 놀라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니, 우리 모두 본분(本分事)을 논할지언정 어찌 헛된 이름을 숭상하겠습니까.

평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이 헛되이 머리 흰 노인이 되었도다. 팔만(八萬)의 장경만을 보아 진각(眞覺)을 구하고 모래를 켜 밥을 만들려고 하는 망령된 공만 쌓았구나.

해암이 상당법어를 끝내고 법상에서 내려와 원당암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한 젊은 스님이 허둥지둥 뒤따르며 물었다.

“큰스님께서도 죽음이라는 마군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해암의 상당법어를 듣는 순간 바로 외위버릴 정도로 귀를 기울였던 젊은 스님이었다. 스님의 물음에 해암은 통명스럽게 말했다.

“세상이 객지 아닌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까 나한테는 죽는 것이 수지맞는 일이지.”

“법문하실 때는 죽음이란 마군 때문에 놀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야,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지. 오래 살아 좋은 일이 뭐 있겠나. 살아서 움직이는 내

사지욕심이란 이미 송장이나 마찬가지야. 풍자투에 불과하지.”

스님이 말을 못하자, 해암이 다시 말했다.

“이제 나는 나를 어느 정도 알지. 죽는다 해도 지금의 내 살림살이보다 나아지리라는 생각, 복과 지혜가 더 많아지리라는 확신이 들어, 죽은 뒤 살림살이가 보이는 거지. 마흔 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는데 두 배 가까이 살았으니 복이 넘치는 것이지.”

<계속>

해암은 스스로 체험하고 확신한 것만을 법문 상당법어는 아무라도 법상에 오르지 못해 내생을 준비하는 듯한 말을 대중에게 발설

조주 스님께서 물으시되 ‘도리어 긍정하십니까, 아니하십니까?’ 하니, 남전 스님께서 이르시되 ‘마음으로 해아린즉 법을 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물으시되 ‘해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도를 알 수 있습니까’ 하니, 남전 스님께서 이르시되 ‘도는 아는 데도 속하지 아니하고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는 것은 망령된 깨달음이요, 알지 못하는 것은 무기(無記)니라. 만약 참으로 마음으로는 해아릴 수 없는 도를 통달하면, 비유하건대 마치 태허공(太虛空)과 같아서 확연히 탁 트이리니 어찌 가히 굳이 옳다 그르다 하리오’ 하였습니다.

이에 조주 스님께서 언하(言下)에 물록 깨달으셨습니까.

무슨 스님께서 평가하시어 가로되,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어서 바로 불 속에 열을 녹듯이 깨달았으나 아직 이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하고, ‘조주 스님이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시 30년을 참구하여야 비로소 옳다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왜 그렇게 말하셨겠습니까.

단도직입이라야 합니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고 말하였을 때 바로 즉시 깨달아 버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물어서 깨닫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깨달음으로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30년을 더 닦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봄에는 온갖 꽃이 피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뜨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흰 눈이

개봉하니 백지 가운데 동백(冬栴) 일엽(一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좌들에게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입사하게 하여 주겠다’ 하고 일구를 써서 답했습니다.

‘설사 일엽(一葉)이라도 삼십방(三十棒)이요, 수연(雖然)이나 일엽이 사방촌(十方村)이라.’

그렇게 써서 보냈더니 그 후 재차 서신상으로 ‘여하시생사해탈(如何時生死解脫)입니까?’라고 물어 와서, ‘이상불법(以上不稱)하리라’ 하고 생각하여 거량(擲量)을 거절하였습니다.

수도자는 진실이 제일이니 대으로 법적으로 삼아 역시 정진하여야 합니다. 정진, 두 글자가 성불지모(成佛之母)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이름을 탐함은 쓸데없이 몸만 괴롭히는 것이고,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업장의 불 속에 마른 쇠를 더 보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이름을 위하여 욕심을 내는 것을 고인이 비유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기러기는 하늘 멀리 날아갔으나 발자취는 모래 위에 남아 있고, 사람은 황천객으로 갔으나 아직 이름은 집에 있더라’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고인이 비유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밭이 온갖 꽃에서 꿀을 따다가 가득 실은 후에 그 고생한 것도 아랑곳없이 누가 먼저 이 꿀을 먹는가’

그릇되게 몸을 괴롭히는 것은 열음을 조각하여 예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 으로서 생사가 돌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정적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